제13강 불교와 몸 [그룹 프로젝트]

(1교시)J_stJo01_031213_1_01

1. 초기 불교에서는 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초기 경전 중 하나인『아함경』을 보면 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송장이 점차 해골로 변해가는 부패의 과정을 연상하는 등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몸의 부정적 모습을 연상하는 수행법인 부정관(不淨觀)에서의 몸은, 부패의 과정에 있으면서 악취를 풍기는 '오물'과 같은 것이며 동시에 악과 괴로움의 근본원인인 탐욕, 혐오,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이 타고 있는 장소이다.

2. 몸에서 욕망은 비롯되는가?

문화인류학적 연구 조사 결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성성과 남성성 그리고 욕망을 일으키는 상징이 다 다름을 알 수 있다. 여성성과 남성성, 욕망의 영역은 각 사회의 시대 사회 문화적 특징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남성과 여성의 차이', '인간의 욕망'에 관련된 부분은 본질적으로 몸으로 파생되거나, 몸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 실은 우리의 '식'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12연기를 통해 본 욕망

부처는 12연기를 통해 고통의 발생과 소멸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몸은 욕망의 산출지 즉, 원천이자 절대적 대상은 아니다. 우리가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은 사회 문화 시대적인 맥락에서 몸을 욕망의 대상으로 상징화시킨 '몸 담론'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근원지 혹은 대상으로서 몸을 설정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자각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다. 모든 욕망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 몸에서 유래한 것, 몸의 특정한 상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욕망은 산출되며 존재하는 것이다.

(2교시)J_stJo01_031213_1_02

3. 불교 역사 속의 젠더

반(反)여성주의적 경향과여성이 종교적으로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모순되는 경향 양립.
문헌에 따르면 고타마의 두드러진 후원자들은 여성들이었고 실제로 고타마의 제자들 가운데 분명 깨달음을 얻은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 여성 아라한에 대한 적지 않은 예화들을 찾아볼 수 있다.

여성과 여성성에 대한 네 가지 다른 입장

(1) 구원주의적 포함
해탈에 이르는 길은 남자에게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
여성이 불교의 수행에서 해탈에 도달하는 그 목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었으나 어느 정도 그 능력이 제한적으로 평가되었다.

(2) 구조적인 남성중심주의
불교 공동체는 그 성격이 수도적(금욕적) 수행의 장으로 옮겨 갔다. 남성 중심적 사회의 구조 속에서 여성 수행자들의 자리는 점점 좁아져 갔고, 결국 공식적인 전통 기록에서 여성의 역할은 사라지고 만다.

(3) 금욕적 여성 기피
훨씬 더 여성에 대해 부정적이고 그 표현에 있어 공격적인 적대심을 드러낸다. 여성은 파멸의 뿌리이며 실체를 잃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성을 거부하고 피해야 하는 것이라 말한다.

참고문헌 :『Buddhism Sexuality and Gender』Edited by Jose Ignacio Cabezon, State of New York Press. 1992.

(3교시)J_stJo01_031213_1_03

제4장 불교미술에 드러난 몸

상징물로 표현된 부처님 생애 중 네 가지 큰 사건
- AC 1세기, 인도마가다주 산치 제1탑 탑문 돋을새김
 마야부인과 부처님의 탄생: 풍요의 상징
 보리수: 깨달음의 상징
 법륜: 최초 설법의 상징
 스투파(탑 형태의 무덤): 대열반의 상징

서있는 미륵보살
- AD 3세기, 파키스탄

후기에 등장하는 미륵보살상(반가사유상)의 여성적 이미지와 대비되는 초기의 미륵보살상이며 상당히 남성적인 이미지다. 흡사 서양 헬레니즘의 조각상을 보는 듯한 옷주름의 형태,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작은 물단지는 미륵보살만이 지닌 것이다.

팔이 넷 달린 서있는 미륵보살

- AD 8~9세기, 태국
 대승불교에 이르러 보살상이 팔을 여럿 지니고 있는 형태는 앞서 살펴본 수인의 상징적 의미들을 모두 지니고 있는 이상화된 인간형의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석굴암 본존불
- AD 8세기, 통일신라

(4교시)J_stJo01_031213_1_04

5. 섹스와 죽음의 긍정

탄트라tantra
탄트라의 사상에 따르면 인체는 우주의 불가사의를 그대로 내부에 간직한 축도.
깨달음을 향한 수행방식이고 세계에 대한 일종의 태도. 힌두 탄트라 / 불교 탄트라
붓다의 세 몸과 상응관계
法身 : 죽음 - 깊은 잠 상태 - 명상 차원
報身 : 중간계 - 꿈꾸는 상태 - 신비한 몸 차원
化身 : 삶 - 깨어있는 상태 - 육체차원

여섯 중간계로 이루어진 삶의 주기

이승 중간계: 태어남과 죽음 사이
꿈 중간계: 잠과 깨어있음 사이
명상 중간계: 이원적인 의식과 초월적인 각성 사이
죽음 중간계: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가는 기간
저승 중간계: 저승에서 실체를 체험하는 기간
탄생 중간계: 저승 중간계와 태어남 사이

죽음의 단계 : 해체와 체험

5가지 요소의 해체	체험
1. 흙(地) → 물(水)	신기루
2. → 불(火)	연기
3. → 바람(風)	반딧불
4. → 의식(空)	밝은 촛불
5. 거친 차원의 의식 → 1단계 직관(욕망)	달빛 밝은 하늘
6. 1단계 직관 → 2단계 직관(공격성)	햇빛 찬란한 하늘
7. 2단계 직관 → 3단계 직관(무지)	순수한 어둠
8. 3단계 직관 → 투명한 빛	투명한 새벽 빛

죽음 수행의 완성단계

1) 육체의 분리 (거친 차원의 몸 → 미묘한 차원의 몸) : 공간(肉)의 초월
2) 말의 분리 : 바즈라 만트라(金剛眞言)의 반복 '옴 아 훔', 시간(호흡)의 초월
3) 마음의 분리 : 심장센터 매듭을 풀고 빈두(精)로 충만하게 하는 단계
4) 투명한 빛과의 융합 : 지극히 미묘한 차원의 몸과 마음(靈) 각성
5) 통합단계

지금까지 살펴본 탄트라와 티벳불교에서의 '몸'에 대한 인식방법은 '몸'을 나름으로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탄트라와 티벳불교에서 '섹스'와 '죽음'을 둘러싼 '몸' 과학의 세밀한 발달은 적어도 '몸'이 주류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배척되고 폄하되어 왔던 데 반해 대중 속에서는 긍정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시사점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몸'을 바라보는 것도 '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